

화려하고 강렬한 음색을 지닌 날라리라는 전통악기가 있다. 날라리는 농악마당에서도 한판의 굿마당에서도 불교전통 음악인 법패에서도 가락의 주도권을 잡아 한 마당 가득 생명감을 불어 넣는다. 그것이 궁중 전통 제례악으로 가면 '태평소'라는 이름을 얻고 그에 걸 맞는 장엄한 선율을 뽑아낸다.

2월 25일 치러지는 17대 대통령 취임식에 그 태평소와 큰북을 합쳐 동그런 곡선으로 처리한 '태평 고'라 이름 붙인 앨범림이 등장한다. 대표적 전통 리듬 악기와 멜로디 악기가 합쳐 '함께 가요'라면서 지금 우리 사회가 묵발하려는 조화로운 삶에 대한 기대를 부풀려준다.

그동안 대통령 취임식 때마다 시대적 상징성을 보여주는 멋진 앨범림이 등장했고 그때마다 우리는 새로 출발하는 장면에 대한 기대감을 지니곤 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지난 취임식들에 비해 이번 취임식에서는 무언가 빠진 듯한 느낌을 가지게 될지 모른다.

봉과 황, 인수 한 쌍의 그 봉황이 무궁화 꽃 한 송이를 둘러싸고 있는, 지금까지 대통령 문장(紋章)으로 쓰이고 있는 그 봉황문장을 취임식에서 볼 수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당선인이 평소 권위적으로 보아온 그 문장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유인 모양이다.

'마음을 들지 않은' 이유는? 당선인이 개인적 신념이나 호오(好惡), 아니면 민주주의 국가에 절대군주시대 지배자를 상징했던 것을 왜? 라는 식의, 당선인 자신의 '해석의 폭'을 가능하게 하는 거부반응은 아닐 것이라 믿고 싶다.



불자 세상보기

김정자 칼럼니스트

봉황을 위하여

말씀이 거룩해질 수도 더럽해질 수도 있음을 우리는 안다. 문장(紋章) 역시 마찬가지다. 문장이 상징하는 인물이 어떻게 처신해 왔느냐가 그 문장을 빛내기도 하고 더럽히기도 한다. 하켄크로이츠가 나치 때문에 이미지가 더럽혀졌다면 같은 문양이라도 불교의 법륜이나 기독교의 갈고리 십자가는 성스러운 기호가 된다.

봉황은 서양의 불사조인 피닉스, 불교의 성스러운 새 기린과 같은, 인류가 상상의 나라를 꿈꾸어 낸, 오색 깃털에 아름다운 음색으로 노래하는 최고 최선의 상징물이다. 이 새들 만큼

아름다움과 평화, 상서로움을 드러내는 신조(神鳥)도 없다.

봉황문장은 어느 때부터인가 한국 대통령 문장으로 태어나, 역사와 전통을 만들며 나름대로의 권위를 만들어 왔을 것이다. 지금 청와대 곳곳에 새겨져 있을 것이고 그곳에서 사용되는 집기며 선물용으로 제작되는 물건들에도 새겨져 있을 것이다.

다행히 취임식 이후 그 문장을 계속 쓸 것인지, 아니면 가능한 드러내지 않는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는 아직 결정내리지 않았다 한다.

그러할 리 없겠지만 만약의 경우 이를 폐기한다면 공연한 참언(讖言과 讖言)의 운상을 만드는 어리석음이 될 것이다. 아니 벌써 일각에서 터무니없는 말이 들리기도 한다.

몇몇 전직들로 하여 봉황문장의 권위가 무겁게 되었다면 새로 취임하는 분 스스로 경멸받아 마땅한 권위주의 아닌 진정한 권위를 회복해서 문장의 권위도 함께 살려낼 수 있을 것이다.

기독교적으로 낮은 데로 임하고, 불교적으로 하심(下心)해 그 초발심을 잊지 않고, 그리고 천성적으로 부지런하고 성실한 당선인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려 그 천성을 심분 발휘한다면 당연히 대통령도 봉황문장도 '진정한 권위'를 찾을 수 있을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믿는다.

감사할 줄 알면 감사해야할 일은 더 많아질 것

박군의 이야기

대학생인 박군은 감사하는 마음의 중요성을 배우고 많은 반성을 하였다. 살아오면서 감사해 본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박군도 감사하는 마음을 입력해 보고 싶다고 한다. 다음은 박군의 이야기이다.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⑤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하니 제일 먼저 중학교 때 담임선생님이 떠오른다. 불교신자이셨던 선생님께서서는 직접 우리 반 학생들을 하나씩 불러서 잘 되라고 기도해 주셨다. 항상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말씀들을 해 주셨다. 그 때 선생님께서서는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삶을 대하라고 하셨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냥 흘려듣고 말았다. 이제 보니 그것이 소중한 삶의 진리였는데.

박군의 감사계획

우선 나에게 감사하고 나와 인연을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나를 둘러싼 작은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실천하고 싶다. - 오늘 당장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

- 모님께 감사하기
- 나와 인연을 맺은 초, 중, 고, 대학교 친구들에게 감사하기
- 우리 집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안내를 하는 노인 분께 '감사합니다'고 말하기
- 내가 타고 다니는 지하철 운전기사 분께 감사하기
- 오늘도 혼신의 힘을 다해 강의해 주신 교수님께 감사하기
- 운송화물 생업선물로 사준 동생에게 감사하기

- 나 자신에게 감사하기
- 나는 나를 사랑한다.
- 건강한 내 몸에 감사한다.

-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 취급을 하진 못하진.
- 나는 원하는 것을 해낼 능력을 가지고 있다.
- 무엇보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절대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나 자신에게 감사한다.
- 그리고 앞으로 하루에도 수없이 감사할 일들을 만들 것이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감사함을 있고 사는 경우가 많다. 불자라면 일체 생명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할 것이다.

한 큰스님께서는 "물 한 모금 마시고 밥 한 숟가락 떠먹어도 더불어 먹고 더불어 감사하는 원리를 알아야 한다. 일부터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께 회향합니다' 하는 생각을 지어서 회향치 않아도, 깊은 감사와 믿음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모든 행이 일체 중생, 일체 부처님과 같이 하는 것이 줄 알아야 한다. 그러면 살아 가는 것이 그대로 회향한 것이다"라고 하시며 일상생활을 감사하며 회향하는 중요성을 말씀하셨다.

황수경(영국대 선학과 강사)

불자의 눈

사찰건축문화재 개방 옳은가?

국보 제1호 승례문에 불이 불다니,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러나 그 어이없는 상황은 5시간 만에 역장이 무너지는 결과를 낳았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그 일의 전말이 밝혀지고, 뒤처리를 하는 당국의 인입과 무지가 보도되는 동안 불자들은 또 다른 공포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다.

사찰의 목조건축물 가운데 상당수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지만 화재에 대비한 설비나 전문 인력이 태없이 부족한 현실을 잘 알기 때문이다. 당국은 사후약방문 격으로 고궁이나 사찰의 목조건축문화재들에 대한 점검에 나서고 있다. 현장에서는 그간 문화재 관리에 대한 국민적 무성의가 얼마나 컸는가를 반성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한다.

사찰의 목조건축물 가운데 국보는 13개 보물은 67개 시도유형문화재는 149개 등 지정문화재는 모두 229개에 이른다. 지정문화재 외에도 사찰의 목조 건축 가운데 문화재급에 해당하는 수가 상당할 것이다. 물론 화재 등 방재 설비나 시스템은 일부를 제외하곤 매우 낮은 수준으로 진단되고 있다.

승례문의 전소를 보며 불교계에서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할 것이 있다. 적어도 국보나 보물급 건축문화재에 한해서 이대로 개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수백 년의 역사를 지닌 목조건축물 전기설비를 하고 수시로 사람들이 드나들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

문화재의 개방이 추세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관리가 허술할 바엔 문을 닫는 것이 낫다. 문화재는 문화재라는 이름에 걸맞게 특별한 관리가 따를 때 가치가 빛날 수 있는다. 국보 보물급은 물론 사찰건축문화재에 대한 '관리의 합리성'을 종단과 정부가 함께 깊이 고민할 때다.

불교대학에서 참불자의 길 찾자

졸업 시즌이 지나고 바야흐로 입학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학교 뿐 아니라 사찰에서 운영하는 불교대학에서도 졸업과 입학 준비가 전국적으로 열리고 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불자(佛子)라고 부르는가? 불자와 비불자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 같은 질문을 해 놓고 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불자들이 갖춰야 할 기본 자질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도 쉽게 나온다. 우선 불자라면 반드시 수계(受戒)를 해야 한다.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신도 5계와 10계 등을 받고 법명을 받음으로써 불자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다.

불자에게 의식절차로서의 수계가 필수라면, 부처님의 생애와 기본교리를 익히는 것은 교양의 측면에서 필수라 할 수 있다. 입으로 <천수경>과 <반야심경> 등을 활활 외우면서 그 뜻을 모른다면 올바른 불자라 할 수 없다. 삼천 배를 밥 먹듯 하면서 부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는 것은 또 얼마나 허망한 일인가? 그러나 아는 것이 많은 것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하는 것이다. 지식의 참고가 가늠해도 실천하지 않으면 빈 깡통에 지나지 않는다.

알고 믿고 행하는 것이야말로 불자의 기본이다. 불자와 비불자의 차이는 아는 것과 믿는 것 그리고 행하는 것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틀림이 없을 것이다. 알고 믿고 행하는 길을 안내하는 곳이 바로 불교대학이다. 올 봄엔 불교대학에 등록하여 참불자의 길을 찾아보길 권한다.

글쓴이 : 해전법사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계의 상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계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로 토질로 변화시키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상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삼담론의 및 책자 신청 성지 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현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1768-8414~6, Fax 0311761-8413

퇴행성 류마티스 - 관절염 한방(韓方)치료한다.

중정환의원 왕 원장은 통상관절염이란 관절의 염증 변화가 생기는 모든 종류의 질환을 지칭하며 궁극적으로는 연골과 뼈를 손상시키며 심해지면 뼈와 뼈가 직접 마찰되어 뼈의 기형화를 일으키며 극심한 통증을 유발시킨다. 왕 원장은 "한방 치료를 통하여 관절염의 고질인 통증을 치료해 줄 수 있다고 한다."

◆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은 어떻게 다른가?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이 나이가 들며 따라 피부가 주름지고 머리가 희고 동맥경화가 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관절 안의 연골(소위 말하는 물렁뼈)에 주름이 지거나 닳아 없어지는 것을 말하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우리 몸의 면역성의 이상으로 올 수 있는 병으로써 나이에 관계없이 아이에서부터 나이 든 노인에게 이르기까지 어느 연령에서든지 발생할 수가 있으며 퇴행성 관절염은 40대 이후 50대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발생률이 높아진다. 그리고 주로 침범하는 관절 부위가 서로 조금씩 다른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손가락, 발가락, 손목, 무릎, 발목 같은 관절에 많이 오지만 퇴행성 관절염은 손가락 끝마디, 무릎 혹은 발목, 척추 그중에서도 요추 같은 체중이 실리는 즉 몸무게가 많이 실리는 관절에 주로 나타난다고 왕 원장은 말한다.

◆ 관절염 통증 치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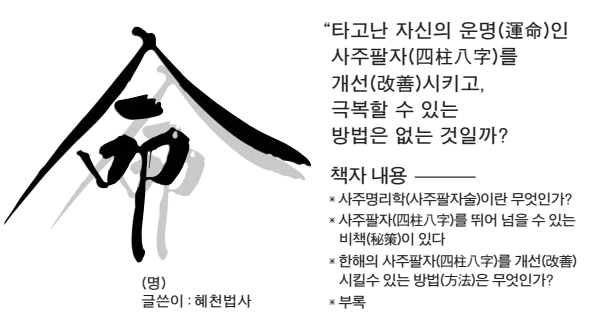
관절염은 그 정도에 따라 경중(輕症), 중중(中症), 중중(重症)으로 나뉘며 초기관절염은 가벼운 통증을 느끼는 정도이고 중기에는 관절 주위가 심하게 붓고 통증은 심해지고 통증이 시작되면 2일~3일간 지속된다. 말기에는 통증이 극심해 일상생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면에도 어려움을 느끼며 최악의 경우 관절 모양 자체의 변형이 유발되기도 한다. 왕 중권 한의학 박사는 "한방 관절염 치료를 통하여 진행 속도와 상관없이 통증을 쉽게 호전되고 밤에 고통 없이 수면을 취할 수 있다"고 한다. 관절의 상태를 되돌리는 데는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초기의 경우 1~2개월의 한방치료가 가능하며 중중(中症), 중중(重症) 관절염 환자의 경우는 3~6개월 정도의 치료기간이 필요하다.



중정환의원 한의학박사 (경희대 외과교수)

중정환의원 상담문의 080-521-6666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영가천도의 중요성”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글쓴이 : 해전법사

책자 안내

-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어날 때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제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법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제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 후 신생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